

12-29-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1-11

말씀 제목: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

사도 요한은 “이 일 후”에 하늘을 쳐다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중 마지막으로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는 교회 시대가 끝이 난 후에, 즉 은혜 시대가 끝이 난 후에 그가 성령 안에서 본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인 지금 배교한 교회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덤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덤든지 하기를 원하노나. 네가 것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덤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 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계 3:15-20)

사도 요한은 교회들이 배교함으로 교회 시대가 끝이 난 것을 알고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 “이리 올라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그는 성령 안에서 휴거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휴거되는 날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살후 2:3)고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휴거되자마자 그는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즉시

하늘 보좌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본 것들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휴거될 때에 사도 요한이 본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또 그 보좌 주위에는 스물네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 4:2-5)

사도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마침내 땅에 대한 환란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지상에 내려지는 일들을 영 안에서 미리 보았던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첫 번째 봉인을 여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계 6:2)

다윗왕은 먼 훗날 나타나게 되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는 악인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를 악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 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뭇같이 말라질 것이라...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이를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악인들은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쓰러뜨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자신들의 심장을 찌를 것이며,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내가 큰 세력을 가진 악인을 보았더니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갔으나 그가 사라져 버렸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도다.”(시 37:1,2,9,10,12-15,35,36)

선지자 다니엘도 악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단 9:27)

예수께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읽는 자는 깨달으라.)”(마 24:15)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인장들이 열릴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지더라.

어린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수 있으리요?’ 하더라.”

휴거되지 못하고 대 환란에 남은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들을 견딜 자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 재앙 후에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호리병 재앙은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질 때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푸른 풀도 타버릴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산이 불에 타서 바다로 던져지니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될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떨어질 때 물의 삼분의 일이 썩어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이 강타를 당하여 낮의 삼분의 일과 밤의 삼분의 일 동안 비치지 못할 것입니다.

대 환란은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남기신 마지막 7년입니다. 또한 마지막 기회로 주신 시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